

배려와 존중은 일상 속 행복의 시작입니다.



“어르신과 종사자의 행복한 동행을 만들겠습니다”

無 폭언

폭언은 마음의 흉기



無 폭행

종사자도 누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



無 성희롱

언어적, 시각적, 육체적 성희롱 금지

